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3년 1월 1일(주일) 제1424호

2023년 온누리교회 표어

'길, 진리, 생명'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바로 알고 믿는 한 해
선교헌금작정, 순장영성수련회, 고난주간 심야예배 등 이어져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길, 진리, 생명'을 표어로 내걸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한 해를 보낸다.

새해 온누리교회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고, 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 시작은 오는 1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외부 강사들이 말씀을 전했다. 26일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천국을 살기 원합니다', 27일 이재훈 담임목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28일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회 은퇴) '나는 날마다 죽노라', 29일과 30일 이태후 목사(필라델피아 빈민사역)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쌓으라'를 주제로 설교했다(메시지 12~13면). 1월 2일 강동진 목사(보나콤공동체), 3일 이재훈 담임목사, 4일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5일 이재훈 담임목사, 6일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오는 1월 7일과 8일, 14일과 15일에는 2023년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목회사관학교가, 3월 1일에는 순장영성수련회가 막 오른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리고,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러브소나타 선교포럼을 개최한다.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리아행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추모주간을 보낸다. 10월 11일과 12일 러브소나타 미야기,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부흥축제가 열린다. 11월 25일 임직식, 12월 2일 장로장립식,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2023-20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의 새해, 선교로 시작합니다!"

1월 7~8일, 14~15일 '2023 선교헌금 작정'
선교헌금작정서, 온라인 작정서, 전화 참여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로 시작한다. 2023년 선교헌금을 작정한다. 1월 7~8일과 14~15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모든 예배에서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예배당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클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규헌금'이나 '봉투헌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전자서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은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우크라이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을 섬겼다. 필리핀, 이라크, 몽골,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등지에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우는 열매도 있었다.

새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 세계 선교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데 집중한다. 또 '글로벌 기후위기와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주제로 KGMLF(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를 개최하고, 2024년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 준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없이는 선교를 할 수 없다"면서 "새해에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함께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기독교 세계관_ 왜 기독교 세계관인가? 4면 | 캠퍼스_ 수원 맞춤전도집회 '엄마의 여행' 그 이후 6면 | 전문가 기고_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공감의 힘! 7면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1~12



이재훈 목사



성탄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과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에 경배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알았어도 경배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알 뿐입니다. 그들이 만일 페르시아 근처 혹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다면 적어도 1,400km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오늘날 비행기가 있어도 1,400km 이상이면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또는 동물을 타고 이동했다면 엄청난 여행을 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상황은 예수님이 집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실 때는 구유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 목자들과 박사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은 한 살이 넘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이 나타난 시점을 파악해서 두 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으니 돌 전후가 당시 예수님의 시기였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 직후 경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적어도 수개월 이상을 여행해서 도착한 것입니다. 매우 긴 여행이라는 대가를 치른 경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메시아 탄생을 알아도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받아도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려고 값진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세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물이 세 가지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찬송가에 실리면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큰 무리, 사절단으로 봐야 합니다.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오랜 기간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은 신분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도자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박사들'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마술사, 마법사, 점성술사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단순히 점성술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성술사들이 이 엄청난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왕을 바로 밑에서 보좌하는 정도의 위치여야 황금과 유향, 몰약 같은 값진 예물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점치는 사람들이 구해 올 수 없는 물건입니다. 또 값진 물건을 운반하기에 경호나 보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물건들은 구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동방'이 무엇인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 몰약은 아라비아 남부 쪽에서 많이 생산되었고, 운반되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남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동방'은 '새벽에서'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했고, 비싼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헤롯은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고, 매우 소동했고, 불편했습니다. 그 이면에 두려움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VS 메시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워계신 집을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뛸 듯이 기뻐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로 번역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헤롯처럼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였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메시 크리스마스(Messy Christmas)'였습니다. 뒤엉켜버린,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혼돈스러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값비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 멀리 이방 나라에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오랜 기간을 여행해서 경배하러 올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 만국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우주적인 메시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단순히 별만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특이한 별의 징조를 봤지만 그 별의 징조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출생이라고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별도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우리가 특이한 별을 봤는데 이 나라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그들이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별의 징조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계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움찔하고 두려웠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대의 왕은 헤롯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위치를 넘보는 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한 것은 특이한 별의 징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출생임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방문함으로써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우주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가장 큰 기쁨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네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네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네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네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사 60:1~3).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은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물, 최고의 기쁨으로 그분께 나옵니다.”

3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라들이’,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나라에서 매우 높은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온 사건야말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역사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세상을 가리고 있을 때 그 먹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그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먼 거리의 수고, 값비싼 예물이라는 대가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재물과 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무엇을 드려도 이미 예수님 것이기에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경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큰 기쁨, 가장 큰 기쁨, 뛸 듯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분노하고, 소동하며,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역사상 ‘헤롯대왕’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한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매우 잔인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왕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에돔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나 유대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로마 원로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도 거대하게 지어주는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잔인해서 공개적인 처형이 매일 집행될 정도였습니다. 매우 무서운 통치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질투심과 두려움이 매우 많았고, 편집증적인 의심에 빠진 인격장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 아들, 가족까지 의심하고, 반역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의심되면 무조건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 장남, 아들들 등 가족들까지 가차 없이 처형하는 안일한 폭군이었습니다. 바로 그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으니 헤롯이 얼마나 본능적이고, 편집증적인 의심, 불안과 광기가 발동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엄청난 살해극을 벌인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한편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또 한편으로는 메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헤롯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기에 더욱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광기로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세계 역사상 헤롯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헤롯과 같은 광기어린 독재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수많은 독재자들이 언제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북한에서 교회를 말살시켰습니까?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세상은 독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과 같이 악으로, 불의로, 거짓된 이념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중국 정부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핍박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뭔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어떤 정치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일시에 쫓아낸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더는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가장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 외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가 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더욱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영에 사로잡힌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이 죽이려 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려 합니까? 무엇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정치하고, 성경 말씀과 교회를 허용해도 당당한 정치지도자라면 그럴 리 없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가 탐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위치에 오르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왕좌에 앉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대도 헤롯처럼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오셨다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받는 모든 선물, 황금과 유향, 몰약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신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당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데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도 헤롯처럼 메시아를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함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헤롯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헤롯처럼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VS 불편하고 두려운 사람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오직 두 가지 반응만 있을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과 메시 크리스마스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장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저 문화 정도로, 캐럴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라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물, 최고의 기쁨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성탄 주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이 기쁨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절망을 이기며 승리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기고

왜 기독교 세계관인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마 6:22~23).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볼 수 있어야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길을 찾아 목적지를 향할 수 있다. 특히 전투에서 시야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군에서 60mm 박격포를 담당하는 포반에 있었다. 효과적인 포격을 위한 첫걸음은 적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는 '보는 것'이었다. 물리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정신적, 영적으로 보는 것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이후 모든 판단과 평가, 결정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 인생은 심각한 어둠에 빠져들게 된다.

세계관(世界觀)이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신(神)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관이 진리에 서지 못할 때 어두운 눈을 갖게 된다.

성경은 눈이 나빠서 온몸이 어두워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준다. 바로 선악과 이야기다.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 한 일이 바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써 창조주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모든 과실을 허용하면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열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은 세 가지 관점을 크게 뒤틀어 속였다. 첫째,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다. 둘째,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신이 될 수 있는 인간을 경계하고 질투하는 존재다.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키는 전략이 통했다. 그 관점을 받아들인 인간은 가장 비극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가나안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열두 정탐꾼 역시 마찬가지였다. 열 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다. 이집트에서 강요받고 세뇌당한 관점이었다. 그들은 가나안이 죽음의 땅이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허망한 존재라고 봤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능력을 가지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관점에서 가나안 거민들은 그저 '밥'에 불과했다. 똑같은 기간 똑같은 경험을 한 그들이 이토록 정반대 결론에 이른 것은 다름 아닌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이다. 선악과 앞에서의 전쟁, 가나안 앞에서의 전쟁은 모두 영적인 전쟁이었고, 동시에 세계관의 전쟁이었다.

이 시대 동일한 전쟁을 본다.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소란과 갈등 뒤에는 세계관 전쟁이 있다.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봐도 그렇다.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논리들 뒤에 있는 거짓된 세계관을 발견한다.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유물론, 사회구성주의 등의 세계관이 뿌리내리고 있다. 성혁명을 통해서 가정을 비롯한 기본적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네오막시즘' 등의 세계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대 우리는 진리에 합한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것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의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몸 즉, 가정과 공동체, 사회가 어둠으로 가지 않게 지킬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고 고정 지면을 할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지면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조준목 목사
(이수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구와 북미에서 친동성애적 제도와 법률이 통과되는데 큰 이정표가 된 두 가지 거짓이 있다.

첫째, 1948년과 1953년 각각 발표된 '킨제이 보고서'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性的) 행동에 대한 연구보고서인데, 성에 대한 담론을 터부시하던 당시 미국 사회에서 킨제이 보고서는 수많은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미국인 약 10%가 동성애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동성애 운동가들이 "국회, 법원, 정부, 언론은 국민의 10%나 되는 동성애자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공격적인 질문을 뒷받침했다. 이 보고서는 이후 40여 년 동안 성적 담론의 독점적 근거자료로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1990년 라이즈먼의 저서 〈킨제이: 성과 사기〉, 〈킨제이: 범죄와 그 결과〉를 통해 킨제이 보고서가 의도를 가진 통계조작임을 폭로했고, 그 이후 국가 단위의 조사에서 동성애는 1~2% 정도인 것이 밝혀졌다.

둘째, 1993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이었던 딘 해머가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Xq28' 부위에 남성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는 논문이다. 앞의 폭로로 무너져 내리던 친동성애 분위기가 이 논문을 기반으로 부활했다. 동성애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유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아니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겨났다. 동정론과 함께 수많은 나라가 동성혼을 허용하고, 친동성애적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2019년 사이언스 저널에 영국과 미국 연구자들이 50여만 명의 유전체를 분석해 동성애 유전체 연구의 결정판이 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작위 모집단을 선택함으로써 이전의 남성 동성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표본 선택이 공정했고, 전체 50여만 명이라는 대규모 집단을 택함으로써 이전의 수백 혹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통계학적 신뢰도가 높다. 둘째, 1993년 해머의 연구는 '염색체 연관 분석(chromosomal linkage analysis)'이라는 불확실한 방법을 사용했으나 2019년 연구는 '전장 유전체 연관성연구(genome-wideassociation study)'라는 가장 정밀한 기법을 사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셋째, 이 연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샘플 선정과 분석방법, 논문에서의 용어 선택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단체 대표자들의 사전검열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 논문 결과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반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논문은 'Xq28' 부위에 동성애와 연관된 어떤 변이도 발견되지 않음을 밝혔다.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과거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확실히 밝혔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동성애자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다섯 군데의 'SNP'(단일염기 다형성)를 밝혔다. 4번 염색체에서 여성 동성애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SNP는 조울증과도 연관이 있다. 7번과 12번 염색체에서 남녀 동성애자 공통으로 나타나는 SNP는 각각 조현병과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두 SNP가 있는데 11번 염색체의 SNP는 후각 수용체와 연관이 있어서 특별한 냄새에 민감하거나 둔감할 수 있고, 15번 염색체의 SNP는 대머리를 유발하는 남성호르몬 조절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다섯 가지 SNP를 모두 종합해도 동성애 성적 행동의 1%밖에 설명할 수 없고, 그 외의 모든 관련된 유전요소를 합쳐도 동성애 성적 행동의 8~25%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동성애처럼 복잡한 인간의 성적 행동을 몇 개의 유전자 변이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최근 유전학과 유전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로 인간 질병의 원인에서 유전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정 유전자 하나의 변이로 발생하는 혈우병, 색맹 같은 유전질환은 특정 유전자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 반면 흔히 발견되는 만성질환들은 유전적 소인이 있지만, 질병 발생에 많은 유전자가 관여한다. 예를 들어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유전적 요소는 30~90%에 이르는데, 이는 당뇨병 발생에 관여하는 수십 종의 유전자 중 하나 이상의 SNP를 많은 환자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애도 단일유전자 변이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 의하면 동성애 발생의 유전적 소인은 8~25%이고, 이는 2형 당뇨병보다 훨씬 낮다. 당뇨병 발병에는 유전적 원인과 함께 과식과 운동 부족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 발생의 책임은 그 행동을 선택한 환자에게 귀속된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그 행위를 선택한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전에 유전적 소인이 큰 28종류의 행동요소와 동성애 사이의 유전적 상관관계도 동시에 살폈다. 거기에는 위험한 행동을 잘 선택하는 성향, 중독적 성향, 다양한 정신질환의 성향, 어린 나이에 첫 성관계, 많은 성 상대자 등과 연관된 유전자가 동성애자에게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동성애자는 동성애라는 위험한 행동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어린 나이에 시작된 잘못된 성경험으로 수많은 성 상대자를 가지게 되는 중독성 있는 행위를 탐닉하는 정신질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이언스와 경쟁 저널인 네이처에서도 이 논문에 대해 "게이 유전자는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결국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 허용의 기반이 된 동성애 유전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들은 그 근거가 사라졌다. 이 상황에 다형의 섹슈얼리티나 성적자기결정권 등 젠더이념이 깊숙이 뿌리내린 '2022 교육과정 개편안'이나 차별금지법의 입법 시도는 진리에 대해 눈감은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시도이다.

◆ 2023 선교헌금작정을 앞두고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지금 선교 현장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오는 1월 7일과 8일, 14일과 15일 국내외 온누리교회에서 ‘2023 선교헌금작정’을 한다. 2023 선교헌금작정을 앞두고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를 만났다. 김홍주 목사에게 지난해 온누리 선교의 열매와 새해 주요 선교 계획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시기 선교사님들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합니다.

“샬롬!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복음전파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누리 선교의 체질이 개선되고, 새로운 사역들이 개발되고, 더 많은 사역지를 개척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선교헌금작정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전통이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인지를 알려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자 명령입니다. 온누리교회는 1월 작정한 선교헌금으로 1년 동안 77개국에 나가 계신 89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주민과 난민사역 등을 합니다. 지금 선교 현장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 같습니다. 새해에도 세계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온누리 선교 상황은 어땠습니까?

“온누리 선교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누리 선교의 체질이 개선되고,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하고, 더 많은 사역지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령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온누리M센터 등은 이러한 사태에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두 차례 비전헌금을 봉헌했고, 그 재정으로 각 선교단체가 긴급구호를 했습니다. 다수의 팀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국내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음에 가장 마음이 열려있고, 전도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온누리교회는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뿐 아니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우크라이나, 남수단 난민들을 섬기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이라크, 몽골,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등지에 많은 교회와 선교센터를 개척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학청년 단기선교사 파송프로그램인 FA(Frontier Agency)도 재개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만교회 지도자 수백 명이 온라인으로 온누리교회 선교를 배웠고, 남미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지도자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세계선교와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공동대회장으로 섬깁니다. 향후 세계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독교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 중요한 대회를 온누리교회가 중심에서 섬기게 된 것은 중요한 책임이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온누리 선교의 주요 사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3년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웃리치를 비롯한 선교지에서의 대부분 사역이 본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선교본부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각 선교 기관과 함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난민과 이주민 선교에 더욱 집중할 것이고, 현지교회들과 협력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강화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도 선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각국의 많은 교회가 협력하기를 원하고, 선교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교회지도자들이 온누리교회를 방문해서 온누리 선교 비전과 사역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프로그램(비타민 C)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 새해에는 온누리교회가 후원하고 주도하는 ‘KGMLF’(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가 열립니다. 이 포럼에서는 세계 선교지도자들과 한국 지도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모여 특정 선교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출판합니다. 올해에는 최근 중요한 이슈인 ‘글로벌 기후위기와 교회의 선교적 책임’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새해 온누리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2024년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세계선교의 긴급성에 관한 생각이 희미해져 가는 이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로잔 정신을 다시 알리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공동대회장으로 섬길 4차 로잔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없는 선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의 재정후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각 지역별, 종족별 기도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기에 기도가 약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모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20)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각 순, 공동체 모임마다 잊지말고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3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었다면 선교사님들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시기 선교사님들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복음을…

수원 맞춤전도집회 '엄마의 여행' 그 이후





수원 맞춤전도집회 '엄마의 여행'에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한 박윤희 성도(두 번째)와 김윤정 성도(네 번째).

'엄마'라는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애틋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난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엄마!' 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깜짝 놀랄 때도 '엄마야!' 소리치고, 나이 들어 힘들 때도 엄마를 찾으며 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큰 엄마의 사랑을 갚을 길이 있을까? 무엇으로도 갚지 못할 엄마의 사랑에 보답할 길이 있을까?

수원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이 바로 그 길을 소개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엄마들이 잠시나마 고단했던 삶의 짐을 벗어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사랑을 누리도록 천국잔치를 열었다. 수원온누리교회 수요여성맞춤전도집회 '엄마의 여행'(이하 엄마의 여행)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1월 30일(수) 수원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맞춤전도집회 '엄마의 여행'에는 전도대상자 28명이 참석했고, 11명이 결신했다. 전도대상자 8명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엄마의 손을 잡은 딸들이 하나둘 모였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득 걸음마 하는 아기가 생각났다.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어느덧 커서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아기가 한 발 한 발 내딛도록 손을 잡아주던 엄마가 이번에는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위치가 바뀌었지만, 엄마와 딸의 걸음에는 여전히 좋은 것만 있었다.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하고 싶은 딸의 사랑도 묻어있었다.

우리 엄마가 평안을 되찾다!

수원온누리교회 박윤희 성도는 엄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하고 싶었다. 자식들 위해 밤낮으로 장사하느라 평생 자신의 인생은 없이 살아온 엄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홀로 장사하고 살림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대장부 같으셨습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노년을 지내실 수 있는데도 평안이 없고, 한숨 쉬는 일상을 보내시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엄마의 삶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박윤희 성도는 엄마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

"엄마는 시골에서 맏딸로 태어나 축복받지 못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남자 형제들에게 치여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집안의 살림꾼으로 지내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시집을 와서도 맏며느리 역할을 혹독하게 하셨습니다. 예민한 성격인 엄마는 남들보다 빠르게 주변을 살피고, 사려 깊게 집안의 어려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 성도의 바람대로 엄마 장외선 어르신이 평안을 찾아가고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고백하셨다.

"엄마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셔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맞춤전도집회 이후 엄마에게 기쁨이 생겼습니다. 평안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엄마의 얼굴빛이 밝아졌다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불면증 치료약도 줄이셨습니다. 김현실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님이 엄마의 마음속에 계심을 신뢰합니다. 엄마의 밝아진 얼굴빛과 밤에 평안히 잠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다!

수원온누리교회 김윤정 성도는 엄마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맞춤전도집회 '엄마의 여행'에 엄마를 초청했다.

"우리 엄마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엄마는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인내로 살아오셨습니다. 늘 '그칠 줄 모르는 엄마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딱딱한 제 마음을 녹여주고, 굽어진 제 생각을 반듯하게 펴주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곁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어주시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주시기도 했습니다. 출근하느라 바쁘실 텐데 늘 우리 삼남매와 아버지, 엄마 도시락까지 5개를 싸셨습니다. 소풍갈 때는 나무도시락 위에 예쁜 그림과 글귀로 엄마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릴 때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누가 돌봐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춤전도집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김윤정 성도가 엄마를 맞춤전도집회에 모셔오기가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날 엄마를 생각했다.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맞춤전도집회가 하나님이 엄마를 위해 마련해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엄마만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맞춤전도집회 당일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으셨습니다. 집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시고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자칫하면 참석하지 못할 뻔 했던 집회에서 김윤정 성도의 엄마 박경순 어르신이 하나님을 만났다.

"엄마가 맞춤전도집회에 다녀오시고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반겨주는 많은 스태프,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 직접 자리를 옮겨주신 김현실 목사님, 깁스를 한 채로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백진주 교수님의 헌신과 사랑에 엄마가 감동하셨습니다. 많은 분의 섬김 덕분에 엄마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해드리면 "아멘"하며 화답하십니다. 엄마가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평안과 변함없는 큰 사랑, 무엇보다 값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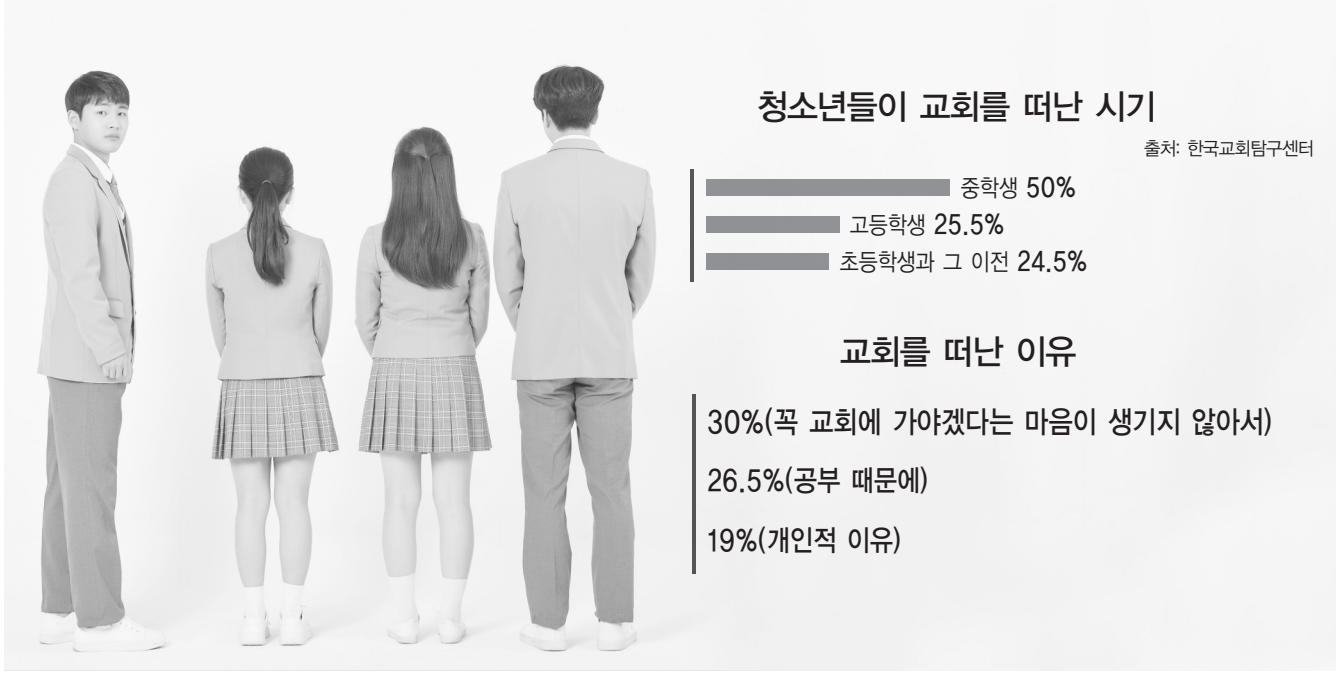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공감의 힘!

다음세대와 눈높이 맞추고, 공감의 폭 넓히기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칼럼니스트)

주일 자모실에서 봉사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예배드리던 시절이 기억날 때가 많다. 엄마 품에 안겨 젖병을 물고 있는 아기, 앉아서 아빠가 주는 이유식을 받아먹는 아기, 자모실에 들어오면서 양말 벗어 던지는 아기, 아장아장 걸으며 남의 과자를 빼앗거나 찬양이 나오는 영상 스크린을 보면서 두 팔 벌려 손뼉 치는 아기 등 천진난만한 모습들이다.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품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언제든 달려와 다시 안긴다는 것이다. 부모들도 수시로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아이의 언어로 대화한다. 남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대화가 통한다. 아이가 아직 말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 부부도 수천 번 "엄마", "아빠"를 선창하며 따라 하게 했던 기억이 있다.



교회 떠난 '가나안 청소년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해라, 하지 마라"는 부모의 훈육 영역 안에 있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 품에서 벗어나려 하고, 부모와 잦은 충돌을 시작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와 시청각 교육방법을 많이 쓰셨다. 왜일까? 그것은 스스로 낮춰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셨을 것이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된 부모와의 갈등은 청년이 될수록 골이 깊어진다. 진로와 결혼 선택에서도 부딪치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해져서 나가 살기도 한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눈을 맞추기 위해 유치할 정도로 노력했던 부모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맞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하다가 결국 좁혀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음을 눈치채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익숙해진 온라인 영상 예배가 더 편해졌다. 여러 기독교 미디어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목회자의 설교를 골라 듣는다. 그마저도 귀찮아지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우리는 어쩌면 자녀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만 맡겨둔 채 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에 대한 설명조차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적 신앙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본 적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차세대 교육이 탄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주일학교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기도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떠난다. 목회자나 임직자 자녀 중에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한 유명 목사님이 나이 50세를 바라보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도 결혼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일반 부모들처럼 자녀의 영적 성장보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둔 결과 아닐까?

최근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지앤컨리서치(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교회 비출석 중고생 2백 명을 대상으로 신앙 의식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시기가 중학생이 50%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5.5%, 초등학생과 그 이전 24.5% 순이었다. 교회를 떠난 이유는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부 때문에"(26.5%), "개인적 이유"(19%)가 뒤를 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다수(84.5%)가 교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22%)했거나 "어느 정도 참여"(62.5%)를 해왔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비교적 활발하게 교회 활동을 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떠난 청소년 60%가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주입식 교육, 평신도 교사 훈련 부족, 가정 내 신앙 전수의 단절 등을 꼽았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초등학생까지 내려왔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을 살려야 한다고 일반과 교계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있지만, 문제점만 지적할 뿐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럽이나 북미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 네덜란드는 19세기 말 전체 국민의 60%가 개신교인들이었는데 지금은 등록된 6,900개 교회 중에서 20% 이상인 1,400개 교회가 술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5%에 불과하다고 한다.

요즈음 유치원생들에게 가장 뜨거운 명절은 설날이나 추석이 아니다. 핼러윈 축제라고 한다. 얼마 전 3백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핼러윈 축제에 참가한 젊은이 중에는 크리스천도 다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몰려간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서 갔을 것이다. 기독교계는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적 요소가 무엇인지 눈높이를 맞추고 살펴봐야 한다.

찬양(CCM) 문화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정통찬송가와 클래식 성가, 복음적인 CCM을 선호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CCM을 거의 듣지 않는다고 한다.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 한 지상파TV에서 우승한 보컬 그룹 회사 대표는 "요즘 청소년들은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 미디어에 익숙하고, 유튜브로 춤을 배워 아이돌만큼 춤을 잘 추기 때문에 CCM이나 랩도 수준 높은 댄스가 들어가야 마음을 연다"고 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지역마다 댄스와 뮤지컬, 랩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데, 랩 가사에 시편과 복음서 말씀을 담아 그들과 함께 열창하고 있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한 종파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천만 명의 유저를 끌어들여 팬클럽을 형성했고, 방송 깊숙이 진출해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개교회주의인 기독교계는 관심조차 없고 문화에 한참 뒤져있다.

필자는 교회 밖 아이들을 위한 문화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르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목회자의 설교보다 스타에게 더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기성세대가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회 안팎의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그들의 생각과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을 위한 '마인드셋'

바람직한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공유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SNS가 공유를 용이하게 만들어 줬다. 다음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주입하기보다 개방에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세대의 실패를 용서하는 아량도 필요하다. 이러한 마인드셋(mindset; 사고방식)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심리학자 테오도어 립스는 "공감이야말로 미적 대상을 감상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일 뿐만 아니라 의식을 지닌 생명체로 서로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모방하는 것, 곧 공감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하룻밤 2,200만 원 하는 호텔에 머물렀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의 2,500조 재산은 천지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도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이들과의 공감을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미천한 죄인인 인간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율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엄격한 유대인의 절기를 파격적으로 깨뜨리셨다. 경건해 보이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가장 천대받던 세리,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공감의 힘이었음을 기억하자. 미래의 교회인 다음세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5)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막 2:3~5).

이 말씀 중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구절을 얼핏 보면 친구들의 노력으로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들린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선행을 인정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문맥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가는 공생애 기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인기와 명성을 얻었다고 보도한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 맛보기(foretaste)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에게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던 가버나움의 집에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서 더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지 모른다. 혹은 그의 친구들이 먼저 팔레스타인의 평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냈을지도 모른다. 성경은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기에 추측만 할 뿐이다. 필자의 생각은 중풍병자가 주도적으로 친구들에게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풍병자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몸을 맡기고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는 것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그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반응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책 없는 행동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풍병자의 죄 문제와 질병까지 치유해주셨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일관되게 미완료 형태(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로 묘사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의 통치와 주되심을 인정할 때 표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막 1:15, 2:2). 이는 구약의 구원론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사 40:9~10, 52:7).

하나님의 구원은 매개(media)로써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구원론적으로 “그들의 믿음”(5절)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로 보면 중풍병자의 구원은 마치 친구들의 선행으로 얻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자로 보면 구원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때의 믿음은 중풍병자나 친구들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적인 믿음과 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구에 의해 최초의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때만큼은 중풍병자에서 시작한 믿음이 그의 친구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을 위해 일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선행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것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5절)라는 구절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수용하고, 행동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다른 성경과 상충하지 않고, 신약의 믿음과도 일치하게 된다(막 9:23~24, 11:22~24, 갈 3:6, 5:22, 롬 1:5, 10:9~10, 고전 15:2).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의 치유보다 근원적인 죄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5절).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죽은 믿음’을 버리고 ‘산 믿음’으로!

1월 2일~8일
야고보서 1:12~5:11



묵상포인트 1: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드러난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갖도록 촉구한다. 참된 경건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묵상하자.

▶ 성도는 시험(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만,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욕심은 죄의 근원이며 그 끝은 사망이다. 성도는 들음과 행함에 늘 주의해야 한다. 평소 말과 분노를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구제에 힘쓰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참된 경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화려하게 옷 입은 부자와 남루한 차림의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마땅히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묵상포인트 2: 언어 습관은 영적 성숙과 직결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이라 칭할 수 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며, 그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세상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언행에 대해 묵상하자.

▶ 우리 혀는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강력하고 ‘작은 불’처럼 위험하다.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지독한 시기심과 거짓말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등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다툼의 원인은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정욕’이다. 다툼의 해결책은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일은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형제를 판단하는 행위는 자신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이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자신을 낮춰야 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사치와 방종에 취해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반면 가난할지라도 오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날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도록 지금부터 어떤 삶을 추구할지 묵상하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재물에만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착취하고 사치와 방종에 취해 사는 부자들은 후일 통곡하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구약성경의 욥은 ‘오래 참음의 본’이다. 현재 삶에 고난이 많을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 원망 없이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따를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해 보자.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가난한 이웃이 있다. 주기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내적, 외적 경건의 기초를 다지자.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의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고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자. ▶재물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따른다. 2023년 재물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엄마를 위해서!

우리 엄마 김정림 성도(경기A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는 한평생 가족들에게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소년들과 가족을 섬기는 상담사이자 목회자로서 늘 크리스천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자에서 은퇴하신 뒤로는 온누리교회에서 재소자들과 오병이어스쿨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섬기며 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일대일제자양육을 한 어르신이 세례를 받으셨다며 온 가족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오병이어스쿨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한다고 즐거워하셨는데 창출 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허리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악성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아라 하시면 열심히 살겠다”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엄마를 의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 박영심 성도



라떼는 말이야

'그럴 수가'가 아니라 '그럴 수도'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멘토님!"

청년들이 나를 "멘토님"이라고 부르면 '과연 나는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멘토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다. 영적 멘토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기도능력과 건강한 자신감,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많은 양의 독서와 삶의 경험, 성경말씀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영적 멘토로서 그들 옆에서 항상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청년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갈등이 많고,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른 사회에서 적응 못 해서 힘들고 억눌린 삶을 사는 청년들이 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불신, 미움, 질투심, 원망 등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육체적 병을 얻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 말씀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자 한다.

사람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 학교나 사회에서는 친구, 선배, 후배 등과 관계를 맺는다. 그들과 서로 보호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배운다. 늙고 병약해지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섬유무역회사를 34년 운영하면서 많은 해외 바이어, 국내 거래처 사람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감사하게도 그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순탄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한번은 회사 업무에 적응 못 하고,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원이 있었다. 그 직원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불평이 가득했다. 그 직원을 퇴사시키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주 주일예배에서 목사님이 "미워하는 형제를 위해 더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셨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 직원의 의자를 붙들고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매일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항상 불편하고 싫고 어두웠던 나의 마음이 밝아졌다. 무엇보다 그 직원의 얼굴이 환해지고 업무 성과도 아주 많이 향상되었다.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었다.

어느 병원장님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럴 수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 조언이 기억난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관계가 회복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 하나님이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의 사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창세기에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악한 사탄은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부정적 생각, 열등의식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정체성을 흔들고, 타인을 미워하고 질투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 "나는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고백한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평 정대하게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을 수 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할 것이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새로워질 것이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



허광수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가족상담

적절한 애착과 적절한 경계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저서 〈Changes That Heal〉에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경계선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삶에서 건강한 경계선이 잘 세워진 사람의 특징은 거절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폐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사람과 유대감 없이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충분히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잘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경계의 뜻은 '한계와 구분을 긋는 선'이다. 심리적으로는 타인과의 구분됨을 의미한다. 건강하고 적절하게 구분된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의 주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그런데 경계가 약한 사람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적절하게 거절 혹은 거리를 두지 못한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부탁을 우선 수락하고 보는 삶의 패턴이 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가정을 돌아볼 힘과 시간까지 소비하면서 부탁받은 일을 하느라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곤 한다. 정작 해야 할 자신의 과업이나 집안의 일들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이 늘 할 일이 많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며, 정작 자신의 삶과 가정은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태로 남겨지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경계선 안으로 넘어오는 많은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고,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명령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구멍 난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난감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일상이 혼란스럽고,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헨리 클라우드는 자신의 내담자를 예로 들어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샌디라는 내담자가 있었다. 그는 심각하게 엄마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자신이 주장을 하면 분명 엄마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결국 분노할 것이기에 자신의 욕구를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만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엄마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자식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라는 부정적인 신념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샌디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보다 늘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다. 상담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부상했다. 샌디에게 그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겼다. 어느 정도 친한 친구들과 휴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들뜬 마음으로 여러 계획을 세웠고 틀림없이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샌디는 만일 추수감사절 연휴에 엄마를 보러 가지 않으면 엄마가 화를 낼 것이고, 엄마를 화나게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며, 결국 자신은 나쁜 사람이 될것이라는 괴로운 생각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헨리 클라우드는 내담자가 거절을 연습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엄마에게 정중하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해볼 것을 권했다. 샌디가 엄마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해야 하는 상황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샌디가 직접적으로 엄마에게 거절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절이 표현된 것이다. 늘 순종만 했던 자신이 반항아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불효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도가 있어야 했다. 거절을 표현한 이후 엄마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은 샌디의 것이 아니라 엄마의 거라고 구분 지어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음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경계를 세워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중하게 거절한 다음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반응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늘 화가 난다", "너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해 죽겠다" 등의 말들은 상대방이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로막는 발목에 메인 굵은 족쇄이다. 흡사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큰 쇠구슬이 달린 사슬로 채워놓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민감하거나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지나친 면이 있다. 여기서 비교적 바른 인식은 '거절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도 결국 나의 선택'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나와 구분 짓는 것도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을 포함해서 타인의 감정과 마음 때문에 심각하게 눈치를 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둥지에 남아 있는 다 자란 새와 같다.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내 욕구나 의견이 있을 때 적절히 표현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천의 모습일 것이다.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대인관계 형태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경계도 필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도 필요하다. 중요한 타인과의 유대감과 애착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경계선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애착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롬 12:2~8).

나눔: 당신은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신앙과 교육 그리고 여행

첫 번째 여행지 '인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릿 대표)

교회는 예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여름과 겨울을 그냥 보내지 않고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 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기간을 선정해 평상시 공간(예배당, 교육관)을 벗어난 장소에서 신앙교육을 했다. 다음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 역시 예배당을 떠나 '신앙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국내 여행산업이 성장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여행 일상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신앙교육 안에서 교육공간의 이동, 곧 여행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근래 신앙과 교육, 여행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프로그램들이 여러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를 넘어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이 현실에 맞춰 어떻게 신앙교육여행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단순하게 신앙교육에 여행의 가치를 얹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여행' 이라는 완벽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경험을 중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모험을 찾으려는 세대에게 신앙의 가치를 전해주면서 믿음의 전수라는 열매를 맛보게 하는 좋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신앙교육여행에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1885년 4월 5일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은 날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이 한국에서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은 부산이다. 날짜도 이틀 빠르다. 부산에서는 이를 기념해서 남포역 5번과 7번 출구 사이에 선교사 기착지 표지석을 세워두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잠깐 들른 부산보다 도착점이 되는 인천 제물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그곳에 '처음' 이라는 의미를 담은 조형물을 설치했다. 1985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이 우뚝 세워졌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은 인천역 부근, 해안도로 바로 옆인 중구 항동 5-2에 있다. 생각보다 크고 높은 조형물과 함께 서 있는 기념탑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건네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이들을 조선 땅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진다.

기념탑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보물찾기라는 즐거움을 주듯이 곳곳에 여행의 의미를 새겨줄 다채로운 선물이 가득하다. 커다란 조형물 아래 새겨진 기도문부터 뒤편에 전택부 선생님이 요약한 한국기독교의 역사가 돌판에 한 자 한 자 새겨져 있다. 이것을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배움을 얻으며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념탑의 일부인 동상들과 부조(浮彫)의 모형과 형태 등을 천천히 살피면서 이 여행에 동행한 이들의 느낌 혹은 해석을 나누면 더 깊은 묵상과 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인천역 부근에 설치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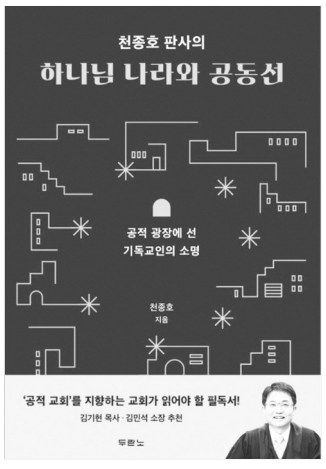
시선을 차이나타운으로 옮겨 맛난 자장면을 먹고 이국적인 거리를 걸으면 생경한 볼거리가 여행의 기쁨을 더해준다. 어느 한 곳을 추천할 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카페가 개성 가득하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1월의 칼바람 추위에도 꿋꿋하게 신앙교육여행을 이어갈 힘이 생길 것이다.

신앙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인 우연히 얻게 되는 유익도 있다. 일부러 찾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준비해둔 것처럼 여행자들을 반겨주는 인천개항박물관과 근대건축전시관이 있다. 이곳 역시 신앙교육여행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다.

신앙교육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책 한 권 소개하고 싶다. 홍성사에서 출판한 〈양화진선교사열전〉이다. 선교사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 전택부 선생님의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어우러져 있는 멋진 작품이다. 선교사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는 책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신앙교육여행을 떠나기 전에 읽어보기를 권한다.

두란노 신간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



〈천종호 판사의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천종호 저 | 두란노 | 24,000원

저자는 이 책에서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혀두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법을 '공동선'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이자 '호통판사' 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는 법조인이자 신앙인으로서 오랜 기간 '하나님의 선(善)' 에 몰두해왔다. 그는 절대가치가 점점 밀려나고, 심지어 조롱당하는 시대에도 교회는 당당히 사회의 공론장에 나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로써 '공동선' 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선은 '공동체를 위한 선',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 를 의미한다.

저자는 크리스천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동선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끼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 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저자의 말대로 크리스천들이 공동선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선(善)을 알고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기독 OTT '퐁당' 추천 콘텐츠

부정적 감정 잘 다루기



'지선쌤의 감정테라피'

인간은 살아가며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그중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다. '지선쌤의 감정테라피' 에 출연 중인 임지선 상담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건강하다"고 강조한다. 성경에도 기쁨을 느끼는 인물들만 등장하지 않는다. 모세는 열등감을 느꼈고, 엘리야는 우울함에 빠졌다. 한나는 브닌나에게 분노를 느꼈다. 이 인물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지선쌤의 감정테라피' 에서는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알고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분노' 를 다룬다. 최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강한 분노에 휩싸이게 됐을까? 임지선 상담사는 분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설명한다.

"분노라는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모두 소중합니다. 다만 분노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이주민 부부 세미나 및 결혼예식

온누리교회, 파주 디자인교회, 지역사회 연합사역

아프리카 이주민 부부들이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을 보냈다. 지난 12월 25일(일) 파주 디자인교회 조이하우스에서 아프리카 이주민 부부 세미나 및 결혼예식이 있었다. 파주 디자인교회(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77-12)는 경기도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비어있는 공장을 예배처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이주민 50~70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조이하우스는 파주 디자인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 센터다.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자녀 27명을 돌보고 있다.



지난 12월 25일 파주 디자인교회에서 아프리카 이주민 부부 결혼예식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이주민 부부 세미나 및 결혼예식은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 대외협력팀과 가정사역공동체 믿음, 희망다락방, 서대문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온누리선교재단, 파주 지역 경제인 연합회의 연합 및 후원으로 열렸다.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온 이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5쌍이 리마인드웨딩, 2쌍이 결혼예식을 했다.

아니타 자매(한국 거주 7년)는 "부부 세미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 좋았고, 비자문제로 결혼식을 못 했던 친구들이 결혼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인자 사모(조이하우스 센터장)는 "아프리카 이주민 부부 세미나 및 결혼예식을 계기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거룩해지고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정선아 자매(뮤지컬 배우, 사진 가운데)가 공연수익금 전액을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기부했다.

뮤지컬 배우 정선아, 데뷔 20주년 공연수익금 전액 기부

뮤지컬 배우 정선아(썸머라이큐 대표)가 지난 12월 23일(금)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데뷔 20주년 공연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뮤지컬 배우 정선아는 2022년 7월부터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봉사했다. 정선아 자매와 배우자 이한빛 형제(DK FINECHEM 대표), 임직원들이 함께 미니 뮤지컬과 마술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발달장애인들이 접하기 힘든 예술 및 놀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계층과 소통하고 시간과 물질, 예술적 달란트를 아낌없이 기부하는 정선아, 이한빛 부부의 선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 정현주 기자

연극 '스크루테이프'

1월 6일~2월 4일 대학로TOM2관

연극 '스크루테이프'가 1월 6일(금)부터 2월 4일(토)까지 대학로 TOM2관(종로구 대학로8가길 85)에서 막 오른다. 배우 황만익, 정의욱, 이은주, 노은하, 김동민 등이 출연한다. C.S. 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원작이다.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대학로 TOM2관에서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4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에 막 오른다. 일요일은 공연이 없다. 설 연휴 1월 23일(월)과 24일(화)에는 오후 3시와 7시에 공연한다. 가격은 전석 6만 원이다. 인터파크에서 예매하면 된다. 문의: 070-7702-5503



지난 12월 24일과 25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상영된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사역본부 12월 24일과 25일 주최

미디어사역본부에서 지난 12월 24일(토)과 25일(주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서빙고온누리교회 건물 뒤편 벽면에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의 외벽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다. 건축과 미술, 빛과 음향을 일체화한 예술 공연이다. 유명 해외 건축물과 덕수궁, 경복궁 등에서 사용하는 공연 방식이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 영상(4분 30초)에는 '천지창조', '타락한 인간', '예수님 탄생'이 순서대로 담겼다. 30분 간격으로 상영했다. 상영 외 시간에는 벽면에 자신의 얼굴을 띄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체험존'을 운영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홍하영 기자

시골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이야기

CGNTV 연말특집 다큐 〈시골 목사 전원일기〉

CGNTV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골 목사 전원일기〉를 제작했다.

다큐멘터리 〈시골 목사 전원일기〉에서는 강원도 정선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 충청북도 충주 전원교회 한석봉 목사, 전라남도 완도군 맹선은혜교회 조규필 목사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기독 OTT '퐁당' 앱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청년 선교사 FA 20기 모집

1월 10일까지 접수 마감

레바논과 인도네시아에서 복음 전할 청년 선교사 'FA 20기'를 모집한다. FA 20기는 2월 6일부터 4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하고, 3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현지 사역,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디브리핑(Debriefing)을 한다.

FA 20기 지원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대학청년부 멤버십 6개월 이상', '35세 이하 미혼(1988년생 이하)'인 형제자매다. 신청서류는 허입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이다. 허입신청서는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모든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이메일(fa@tim.or.kr)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1월 10일까지다.

FA는 'Frontier Agency movement'의 약자로 온누리교회에 청년선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세워진 대학청년 단기선교 사역이다.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평택온누리교회가 지난 12월 25일(주일) 창립 1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평택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국내 여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지난 2019년 10월 예배처소를 이전(평택시 용이동 아원프라자 2~5층)했다.

평택온누리교회는 평택 지역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섬기면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는 "평택온누리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이주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멕시코에 초등학교 건축

NGO 더멋진세상이 멕시코 린꼰시또 마을에 초등학교를 건축했다. 린꼰시또 초등학교는 이 지역 아동 800여 명이 이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7일 린꼰시토 초등학교 완공식이 있었다. 멕시코 교육부 관계자, 미주지부장 이정엽 목사,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티후아나 지역 인사 등이 참석했다.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온누리장로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월 4일(토)까지 박일면 장로(가정사역공동체, 장로합창단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오디션은 없다.

문의: 010-3708-5781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 2만원.

문의: 02-2182-911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

◆ 12월 26일 월요일

천국을 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12~25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계속 도움만 받으면 결국 늘 손 벌리고, 남들한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마루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화하려면 회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노숙인 목회는 2006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노숙인들이 변화되는 것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만남도,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세례 받은 형제가 노숙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회개한 자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회개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도덕적인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개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개는 성찰이나 반성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회개가 중요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나에게 깃듭니다. 천국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하면서 공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내 안에 천국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천국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제 안에서 회개의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임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살아 임하시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흑암에 앉은 백성(마 4:16)"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숙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학문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열매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 깃들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세상이 부럽거나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산마루공동체를 만드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해주셨고, 이재훈 담임목사님도 기도 가운데 힘이 돼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 12월 27일 화요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1~15

이재훈 목사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인원이 5천여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 6:5)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문자 그대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요 6:7)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요 6:10)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도 이상하지 않은데 모여 앉게 하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앞에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 6:12)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배부름 속에 찾아오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배부름입니다.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은 '교만' 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을 유지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되시는 분이기에 믿고 찾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 마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채워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주는 영적 위험까지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배고픔 속에 있었을 때 오병이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작은 가능성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과 행복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배부름이 찾아오자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찰 만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간, 재능, 물질 등 소중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축복의 기적을 만들어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등 버려지는 것이 없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2월 28일 수요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31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회 은퇴)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인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회하면서도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질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적 환경이라는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동으로 맺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은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인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의심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갔습니다.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군종병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성경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그때 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는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멸망하는 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십자가의 도(진리)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거듭났음을, 새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고후 5:11). 하루하루 감사했고,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났지만,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우리에게는 매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죽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부활 전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나의 죽음' 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갈 2:20).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나의 고집, 신념, 자존심, 주장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동시에 포기의 길이고, 양보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의 부인과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 12월 29일 목요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가복음 10:25~37

이태후 목사(필라델피아 빈민사역)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의 불순한 의도를 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돼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미국 필리델피아 노스센트럴입니다. 주민 90% 이상이 흑인이고, 빈민가입니다. 저는 2003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2004년 필라델피아 경찰청에서 마약사범을 단속했습니다. 그날 우리 동네에서 137명을 체포했습니다.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겨울이면 난방하려고 나무를 뗍니다. 한동안 나무만 보이면 옆집에 사는 분에게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형편이 낫지 않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동네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제가 사는 집 바로 옆 블록에서 총기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반자동 소총으로 무작위 사격을 했습니다. 건너편 차가 박살 났고, 건너편 집 문을 뚫고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우리 캠프에 왔던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14살 여자아이의 등을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하교하던 아이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었을 때 받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네 아이들과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캠프에 처음 온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주립 수영장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시립 수영장이 있는데 좁고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우리가 가는 수영장도 그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들여보내는데 그 여자아이가 눈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좋은 곳에 와서 기쁜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 아이의 기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웃들이 보입니다. 새터민, 중국 교포,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쪽방촌에 사는 분, 노숙자, 독거노인, 싱글맘, 고아, 장애인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 12월 30일 금요일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35:1~15

이태후 목사(필라델피아 빈민사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벧엘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준 모든 이방 신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길을 떠났습니다. 벧엘에 온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벧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야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최근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기 위해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를 놓았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무슬림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마땅히 환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찾아온 이방인들의 권리나 행복에 관심 없는 이유는 '나만의 행복'이라는 우상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정치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집권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당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정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나라를 이루려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상은 현실 또는 '먹고사니즘'입니다. 가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나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가난한 이웃을 돌본다는 게 사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끔찍합니다. 저도 권총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동네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현실이 전부라면 저는 짐을 싸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동네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두려움이 원인일 것입니다. 인생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재정 뭐 하나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셨고,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든 나의 걸작품, 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얽어맸던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꿈꾸십시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쉘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료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모집
모집: 몽골,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 자녀들을 섬겨주실 교사
시간: 유치부~초등3학년(11:00-12:30), 초등4학년~중학생(11:00-14:00)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이 있는 분
문의: 김재혁(010-3353-9150)

한국어 읽기 교육용 도서 기증 요청
용도: 이주민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한국어 읽기 교육용
모집: 1. 훈민정음 아아어여, 2. 냠냠 한글 가나다, 3. 개구쟁이 ㄱㄴㄷ, 4. 가나다는 맛있다, 5. 생일 축하해요 ㄱㄴㄷ, 6. 숨박꼭질 ㄱㄴㄷ, 7. 글자없는 그림책 하나, 8. 나쁜 말이 불쑥, 9. 구워 주세요
문의: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031-8077-9110)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인원: 정규직 1명
업무: 인사(허입), 훈련행정
장소: 양지 Acts29비전빌리지 3층
근무: 화~토
문의: 070-4464-810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안드로이드/프론트/백엔드 개발자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부 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샤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 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 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도육환 렵문흥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순 유진아 윤길중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재욱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정회성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복 장지훈 정연상 주하늘 진선미 최재윤 카와무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레베카정 비 켈 서영철 박씨마 백승현 싱무아놉 사가르 에릭마이클스톨즈 윌리엄 이성광 이진이 이진희 윤치연 전 진 제인량 차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미모데 김동규 김반석A 김반석B 김사라 김영신 김의연 김예찬 김종균 김주영 김정무 김정호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은혁 박예슬 박유진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한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애나아말라 안류택 양현모 오국헌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종연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아야루르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준수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상원 정연영 정연상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성희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홍충우 황승남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종실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흥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흥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법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한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욱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짱찬 문영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봉국 유재홍 유 형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윤현덕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영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명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현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라헌스펙스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결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탁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연 김성진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법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박효택 성현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코다이라 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효택 성현제 손정래 신솔문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효택 성현제 손정래 신솔문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효택 성현제 손정래 신솔문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결혼

1월 7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정일남, 이영순(무안운남중앙교회 전도사, 권사)
아들 정요환(온누리교회)
성경식, 황성미(목포성산교회 장로, 권사)의 딸
성스런(온누리교회)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510)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2/22(목) 마포 정은경 성도 시부상 고 송계종
12/22(목) 분당B 노민정 안수집사 부친상 고 노의훈
12/22(목) Bridge33+ 이택근 성도 부친상 고 이동욱
12/22(목) 서초B 엄석정 성도 부친상 고 엄흥섭
12/22(목) 영등포구로 김영화 성도 부친상 고 김장용
12/23(금) S브릿지 송현정 집사 부친상 고 송성출
12/24(토) 서초B 최지선 성도 부친상 고 최성용
12/24(토) 성동광진 석윤수 집사 부친상 고 석진우
12/25(주일) 분당A 임재현 안수집사 모친상 고 김정순
12/25(주일) 강남B 박현정 성도 시부상 고 임동관
12/25(주일) 동작 지순애 권사 모친상 고 심정여
12/25(주일) 고양은평 김희범 성도 부친상 고 김대용
12/26(월) 서초C 유웅열 성도 모친상 고 이수안
12/26(월) 동대문중랑 최양숙 성도 모친상 고 김유순
12/27(화) 한강 허규하 성도 빙부상 고 정호상
12/27(화) 송파A 최문아 성도 부친상 고 최갑수
12/29(목) 서대문 서영주 집사 모친상 고 김갑수 성도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23년 1월 7-8일, 14-15일
선교헌금작정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합니다.



선교헌금 작정 방법

1. 현장 작정 (2023년 1월 7-8일 , 14-15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정서 작성

2. 온라인 작정 (상시 작정 가능) :
선교헌금작정 QR코드

온라인 작정

3. 전화 작정 (상시 작정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정 가능합니다.

선교헌금 작정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② 처음 작정하시는 분은 <신규 작정란> 작성
③ 이미 작정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정란>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헌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②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